

지역 소식통

고창군, 민선 8기 공약사업  
군민참여 토론회 열어

고창군이 오는 31일 오후 2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6개분야 87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군민 참여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민 공감대와 실효성을 갖춘 공약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다.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약사업 6개 분야별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발표 후 군민 참여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항 6개 분야는 ▲고투 잘 사는 풍요로운 농어촌(20개사업)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생동하는 지역경제(15개사업)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21개사업) ▲인간적이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16개사업)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6개사업)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9개사업)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인문학 콘서트  
'정읍농악' 펼쳐

정읍시는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인문학 콘서트 '호남우도농악의 발상 정읍농악'을 선보인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호남우도농악의 한 지류인 정읍농악을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콘텐츠다.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정읍농악 연행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당밭을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농악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생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정읍농악의 기능적·예술적 측면 외에 역사적 당위성을 시연과 판곡을 가미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시민과 농악인들에게 풍성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자원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6호 경고갈소고춤 인간문화재 정인삼이 고갈소고춤 선보이며 남성적인 역동성과 함께 한국 춤의 수려한 곡선의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주요 현안 '현장 행정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등 6개 사업장 추진사항·문제점 점검

이학수 시장이 지역 발전을 이끌 개발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건립 현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 6개소를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물론 현장 근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이날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건립 현장을 시작으로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 ▲장급이 미라클파크 조성사업 ▲사남진 추모공원 2단계 조성 ▲동물보호소 ▲샘



골 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업 현장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또 사업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과 내장산

리조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경쟁력 상승을 위해 공사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샘골 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친환경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치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민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수렴한 시민 불편 사례와 건의 사항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 신속하게 보완·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현장점검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불편을 예상해보고 미리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라며 "모든 사업은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제2기 부안군 청년 정책 위원회 출범

청년UP센터서 위원 13명 위촉

부안군은 25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제2기 부안군 청년정책 위원회 위원을 1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다. 지난해 12월 20일 제1기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 위원을 맞이했다. 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부안군 청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제2기 위원구성은 위원장인

김종택 부군수, 이현기 부안군의회 부의장, 김습지 도의회 의원과 김한수 부안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고, 전문위원 4명과 지난 7월~8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위원까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2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방향은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하여 군정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신진위원 참여확대 하는 3가지 기본방향이 반영되었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년활동가들의 지식과 경험,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성과 지식이 청년정책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2기 위원들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인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12월경에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올해 벼 조생종 '진광' 첫수확

고창군이 25일 부안면 상당리 이강목씨 논(6500㎡)에서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주민구 산업건설위원장, 농업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이문구 지부장 등이 참석해 벼 수확을 함께하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 나은 농업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첫 수확한 벼는 밥맛이 우수하고 도열병에도 강한 고품질쌀로 평가받는 조생종 '진광'벼다. 이씨는 지난 5월1

일 모내기 후 116일 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며 이후 도정을 거쳐 추석 전 햅쌀로 소비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전 지역이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서해안 해풍 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조건으로 게르미늄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최고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짙달타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와 싸우며 결실을 맺은 농가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고품질 쌀산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4일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 참석하여, 주한중국대사관(대사관 상하이밍) 감사패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의 수여로 수상했다.

## 주한중국대사관 감사패 수상

권익현 부안군수, 한중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4일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 참석하여, 주한중국대사관(대사관 상하이밍) 감사패를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의 수여로 수상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중국현지 관계자 및 정치·경제·교육·인문·예술의 우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 리셉션 홍보영상 송출 및 다채로운 공연의 식전행사와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장청강인사발씀)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의 내빈축사 그리고 한중우호상 및 주한중국 대사관 감사패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한중국대사관 감사패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발전 및 친선 관계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는 "행정·경제·문화·교육·관광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청소년 해외연수 및 각종 체험 등 문화교류,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의 상호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권익현 군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자"고 전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방자치가 열리고 부안군 최초의 연임군수로 선출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미래 100년 담대한 항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출범식 및 제46대 군수 취임식을 갖고 부안군 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두손푸드 '마시는 죽' 인도네시아 수출

정읍시 칠보면에 소재한 농식품 가공업체 (주)두손푸드(대표 구성규)의 '마시는 죽'이 인도네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주)두손푸드는 25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인도네시아에 '마시는 죽' 첫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 기념 상차식을 가졌다.

이날 상차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구성규 대표,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마시는 죽'은 5천만원 상당의 단팔죽, 단호박죽, 흑임자죽, 견과죽 등 총 4종으로 60,114봉이다.



'마시는 죽'은 전북에서 생산된 귀리, 고구마, 단팔, 단호박, 방울토마토, 복분자, 사과, 쌀, 콩 등 12가지의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구성규 대표는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에 환원하는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